금주의 법구–〈아함경〉
맹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악한 벗을 두려워하라.
악한 벗은 마음을 파멸시킨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235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3년 음력 1월 30일) 2019년 3월 6일 수요일



100년 전 함성, 이젠 우리가 일제강점기 한반도에 뿌리 내린 어둠을 걷어내고, 민족자주정신을 만방에 떨친 기미년 3.1운동이 100주년을 맞았다. 100년 전 그 함성은 자유로운 대한민국의 기틀이 됐으며, 후손들의 자존을 바로세운 사자후였다. 사진은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3월 1일 조계사에서 개최한 기념법회서 스님들이 백초월 스님의 진관사 태극기를 그린 손태극기를 흔들며 만세삼창을 하는 모습. **글=윤호섭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비폭력 평화운동으로 3.1정신 실천하자”

3.1운동 100주년, 불교계 등 전 국민적 기념행사

종단협, 조계사서 100주년 법회
‘평화번영 위한 불교선언문’ 발표
중도 · 화쟁 강조한 실천강령 담아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1919년 3월 1일 조선자주독립을 부르짖는 거국적인 평화만세시위가 열린지 정확히 100년이 지난 오늘, 종교인을 비롯한 전 국민이 선조의 민족정신을 되새기는 기념행사가 잇달아 열렸다. 특히 한국불교계는 종교와 이념을 가리지 않고 희망의 메시지를 던진 독립선언문을 잇는 3.1운동 100주년 불교계 선언문을 발표했다.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원행, 조계종 총무원장)는 3월 1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3.1운동 100주년 기념법회를 봉행, 순국선열들에 대한 헌화와 추모묵념을 올리고 3.1절로부터 100년이 지난 현재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불교계 선언’을 공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계종 · 태고종 · 천태종 · 진각종 · 관음종 · 총지종 · 대각종 등 종단협 회장단 종단을 비롯한 20여개 한국불교 종단 지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기념법회에 참석한 불교지도자들은 조국독립을 이끌어낸 선조들의 3.1정신과 독립선언문이 당시 민중을 감싸 안은 미륵보살의 하생(下生)과 같다고 상찬하며,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대립과 갈등에서 벗어나 상생의 희망을 보여준 적극적인 외침이었음에 공감했다.

불교지도자들은 대표로 회장 원행 스님이 낭독한 선언문을 통해 “조선인이 본래 지닌 독립권과 자유권의 불성을 지닌 존재라는 사실을 내외에 천명한 것이 삼일정신이다. 나의 평화가 곧 세계의 평화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사해의 동포들에게 주지시킨 성스러운 선언이었다”고 3.1정신의 의미를 되새긴 뒤 “삼일정신은 무력이 아니라 도덕을 새로운 시대정신으로 선언했다. 비폭력 평화운동이라는 삼일정신은 옳은 방향성을 지녔기에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고 강조했다.

불교지도자들은 이어 “이제 삼일정신이라는 씨앗의 과거 백년을 이어받아 미래 백년의 열매를 준비하는 것이야말로 옛것을 통해 현재를 새롭게 만드는 지혜의 수레바퀴가 되어 거듭 우리들을 일깨워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불교지도자들은 이번 선언을 통해 과거 조선만민의 독립자주정신을 오늘날 되살리기 위한 실천강령 4가지를 선언했다. 불교지도자들은 △사회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편가름의 언동과 행위 일체 배격 △양극단의 주장 대립 시 중도와 화쟁 사상으로 해결 △일체의 무력과 폭력적 행위 용납지 않을 것 △적극적인 남북교류 지지와 한반도 평화정착 · 조국통일에 노력 등을 실천할 것을 다짐했다.

불교계 선언문을 발표한 불교지도자들은 이어 1919년 3월 1일을 기해 전 국민에게 배포된 민족대표 33인의 3.1독립선언서를 낭독하며 3.1정신을 재차 기렸다. 이후 대웅전을 나와 참석자 전원이 함께 백초월 스님의 진관사 태극기를 그린 손태극기를 흔들며 만세삼창을 했다. 또한 전국 1만 5000여 사찰은 낮 12시 33번 타종을 하며 민족 번영과 평화통일을 기원했다.

3.1운동 100주년 특집 섹션 B면

동국대학교 제19대 총장 취임

존중과 소통을 통해 공헌으로 존경받는
세계 속의 명문사학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동국대학교 제19대 총장 윤성이

dongguk UNIVERSITY